

6월의 사양관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일반관리

우리나라 여름철인 6~8월의 고온기 때에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젖소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여름철 기온이 27°C 이상되는 고온기에는 호흡률 증가, 체온 증가, 사료섭취량이 7~12% 감소하고, 산유량도 20~30% 정도 감소한다. 특히, 고온기 때는 땀과 호흡으로 배출되는 광물질(Na, K)의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양이온 광물질 급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온스트레스시 저하되는 면역 및 대사작용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사료급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젖소에게 여름철 고온환경을 잘 극복해주지 않으면 심각한 생산성 저하로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하게 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을 대비하여 축사환기시설, 환풍기 및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장마에 대비하여 우사 및 운동장 주변 배수시설을 점검한다.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이므로 야적된 분뇨가 있다면 장마 도래 전에 완벽하게 처리하거나 빗물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잘 덮어 비로 인한 축산폐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수태율 저하가 우려되므로 번식성적 향상을 위하여 수정정기를 놓치지 않도록 발정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반드시 1일 2시간 정도 발정관찰을 하도록 한다.

사양관리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사료원료의 수급불균형 및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 배합사료가격의 추가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료비 절약을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값싼 부산물을 이용하고 섬유질이 높은

것은 분쇄 정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량을 조절하고 그에 따른 배합비를 조절하여 가격은 낮추고 젖소의 능력에는 영향을 줄은 쪽으로 미치도록 한다. 젖소가 적정 영양수준을 공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양관리 진단의 한 방법으로 MUN(우유 중에 함유된 요소태 질소의 농도) 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 즉 MUN은 유단백질 농도와 함께 착유우에 대한 단백질과 에너지 공급상태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데, 각 목장에서는 젖소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여 정기적인 MUN 정보를 받아봄으로써 급여하고 있는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알아낼 수 있으며 개체별 또는 전체 우군별 MUN 변화양상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사양관리 목표를 세워 건강한 축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정 MUN 수준은 우유 1데시리터당 12~18mg이며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사료중 에너지와 단백질 균형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료배합비를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

방역 및 위생관리

기온이 올라가면서 파리과 모기 등 해충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게 되므로 사료조는 급여 전 깨끗이 청소하고 우사 소독을 월 1회 정도 실시한다. 또한 음수량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공급되도록 한다. 양질의 원유를 생산은 낙농가 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국내 우유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로부터 인식받기 위해서는 체세포수 및 세균수 그리고 항생물질 관리철저로 1등급 우유생산

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젖소의 하복부나 유방주위의 긴 털은 수시로 이발기거나 불로 제거해 주고 꼬리, 허벅지, 하복부, 유방주위의 오물도 제거해준다. 그리고 착유시 착유자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꼬리도 깨끗하게 가위 등으로 손질한다. 정기적인 착유기 점검과 CMT검사를 통한 준임상형 유방염 감염유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일도 양질의 원유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초지 및 사료작물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강수량 및 온도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고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심하므로 가축의 건강을 면밀히 체크하는 것은 물론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일기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건조를 만들고자 할 경우 건조 중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옥수수 등 초지 및 사료작물에 발생하는 멸강충 및 조명나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해야 할 시기이다. ☹

<멸강충 및 조명나방 방제방법>

구 분	멸 강 충	조 명 나 방
발생 및 증상	6월 중순 경 2차례에 걸쳐 많이 발생하며 잎을 주로 갠아먹는데, 조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초지 및 옥수수대만 남기고 먹어치움.	6월 중순 경부터 발생하여 옥수수 줄기 속에 기생하며 옥수수대를 부러뜨리고 옥수수 수량을 감소시킴.
방 제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철저히 하여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발생시 디프테렉스 1,000배액을 1,200ℓ/ha살포	경운시 포장에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도록 깨끗이 갈아엎고 적기파종으로 저항성을 갖도록 하며 살충제로는 후라단 사라약을 ha당 30~40kg을 살포하거나 세빈 600배액을 ha당 1,440ℓ 정도 살포한다.